

'제94회 남원 춘향제' 성황리 개최

제95회 춘향제 비전 발표... 최경식 시장 "남원 전통 음악과 현대적 감성 결합된 프로그램 선보일 것"

남원시는 제94회 남원춘향제가 지난 16일,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개최될 제95회 춘향제의 비전을 발표했다.

폐막식은 △식전공연 △춘향제 이모저모 영상상영 △격려사 △제95회 춘향제 비전선포 △폐막선언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0일부터 7일간 남원을 뜨겁게 달궜던 제94회 춘향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 제94회 춘향제는 축제의 정체성을 재확인한 성공적인 축제였다"며, "특히 어느 해 보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민족이 참여하면서 우리 춘향제가 'k-컬처의 중심'으로 더 세계 속에 나아갈 수 있겠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축제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 춘향제는 춘향정신이 더욱 뚜렷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93회 빛, 94회 컬러에 이어, 제95회 춘향제의 키워드는 '소리'로, '소리의 도시' 남원을 상징하며, 남원의 전통 음악과 현대적 감성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제94회 남원춘향제가 지난 16일,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개최될 제95회 춘향제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남원시는 춘향제를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0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6월 12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6월 15일 군산 은파호수공원에 진행

자라는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을 개발하고 상상력을 북돋기 위한 '제10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올해 10년을 맞는 '가천그림그리기 대회'는 전북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2014년 모교 군산 대야 초등학교에 국내 최대수준의 '가천 이길여 도서관'을 건립·기증한 것을 기념해 2015년부터 개최됐다.

이후 매년 군산은파호수공원에 학생과 가족 등 1만여 명이 참가하게 된 '가천그림그리기 대회'는 가천길재단(설립자 이길여)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발전했다.

이번 대회는 내달 6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고, 시상도 각 부문 별로 이뤄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접수기간은 20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대회 당일 작품을 제출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도회지는 저학년(유아부~초등학교 3학년)과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을 구분하여 대회일에 현장에서 주최측이 제공한다. 참가자는 물감, 붓, 크레파스, 돗자리, 간식 등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오면 된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유아, 초·중·고 구분, 각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선정)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약 400여 명을 선정하고,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각 부문 대상)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군산시장상, 군산시의회의장상, 군산교육장상 등 다양한 상장과 작품집, 부상이 제공된다.

그리고 우수작품은 수도권과 군산, 해외 도시 등에서 특별전시회를 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자치도 관광 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7일까지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관광기업과 청년 또는 경력 단절 여성 인턴을 연계해 도내 관광산업

의 구인, 구직난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턴에게는 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형 관광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도내 소재 관광기업으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2인 이상(대표자 제외)인 곳이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직원 2명까지 인턴의 월 급여의 90%(1인당 최대 180만원)를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급여의 70%(1인당 최대 140만원)를 2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063-230-4216)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성남훈 개인전' 26일까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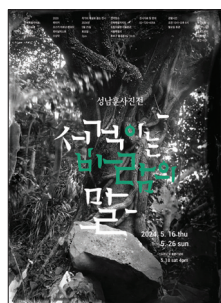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오는 26일까지 서울관에서 성남훈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 '서걱이는 바람의 말'은 중첩된 제주의 역사를 새롭게 이미지화해 그 공명을 공유하고자 한 작업으로 구성됐다. 이는 코소보,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발칸, 소록도 등 국내외 분쟁, 난민, 국가 폭력, 기아, 환경 관련 작업의 연장선이다. 작가는 대형 4x5 필름로이드 필름을 사용해 촬영한 뒤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한 현장의 나무나 바위 위에 사진을 밀어 이미지 위에 파열을 가했다. 이 과정은 한 장의 사진으로 온전히 재현할 수 없는 역사의 불완전성, 희미해질수록 불들어 두어야 하는 기억의 소멸에 대한 사진의 질문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두고 "기록하고 사진으로 진술해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우리는 말하지 못했어도 바람은 말해왔듯이, 이 사진들이 한줄기 '바람의 말' 이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성남훈 작가는 지난 30여 년동안 세계 곳곳의 전쟁과 소외 지역을 방문해 그곳에 부유하는 삶의 고통과 상처를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부서진 삶 속에서도 자연의 풍경과 생의 순간에 깃들어있는 서정성을 포착해냈다.

특히 작가는 2019년부터 '제주 4·3 사건'에 관심을 두고 학살터와 희생자들이 수장된 바다, 굿, 신당과 생존자들을 찾아다녔다. 1만 8천명의 신이 있는 신화와 무속의 섬인 제주도에서, 누구도 학살을 언급하지 못할 때 비밀리에 희생자와 생존자들을 위로한 심방들(제주



도에서 무당을 지칭하는 용어)에 주목하기도 했다. 작가는 제주 4·3 사건과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들을 다루며, 긴 시간 그들의 주변에서 위로를 나눈 곳과 제주의 신화적 풍경을 담았다.

성남훈 작가는 프랑스 파리의 이카르 포토(Icart Photo Ecole de Paris)에서 다큐멘타리를 전공한 후 프랑스의 사진 에이전시 라포(Rapho)의 소속 사진가로 활동했다. 전주대학교 사진학과 객원교수와 온빛다큐멘터리 회장을 역임했으며, 전주국제사진제 총감독과 사진집단 꿈꽃팩토리 대표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장은성 기자

해망굴서 펼쳐지는 생생국가유산사업

'근·현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in 군산' 25일 진행

군산시가 생생국가유산사업인 '근·현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in 군산'을 군산의 대표적 근·현대 역사적 현장인 해망굴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생국가유산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유산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는 등 순수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생생국가유산사업을 진행하는 해망굴은 국가등록유산으로 구 군산시청 앞 도로인 중앙로와 수산업의 중심지인 해망동을 연결하기 위해 1926년 건립한 반원형 터널이다.

특히 한국전쟁 중 군산 주둔 북한군 지휘본부가 터널 안에 있어 연합군 공군의 공격을 받은 역사의 현장이며 근대 도시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토목구조물이다.

'근·현대 역사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in 군산' 프로그램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탐방 프로그램 코스는 '해망굴-월명공원(해망자연마당)-해망동 수산시장-해망굴'로 이어진다.

참여를 원한다면 구공품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해망굴 탐방 외에도 체험, 공연, 프리마켓 등이 준비되어 있어 해망굴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현석 문화예술과장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2014년부터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꾸준히 선정돼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유산 가치 창출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번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